



## 유럽 금융거래세 도입 지연

이정환 선임연구원

■ 유럽연합(EU) 27개 회원국 중 11개국(이하 FTT 회원국)<sup>1)</sup>이 2014년부터 먼저 실행하기로 하였던 금융거래세(FTT: Financial Transaction Tax) 도입이 최소 6개월 지연될 것으로 보임.

- EU 집행위원회는 실행을 위한 실무 협상이 2013년 중 완료되고 참여국의 관련 입법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 금융거래세가 2014년 중반에나 실행될 수 있으며, 참여국의 협상이 지연될 경우 도입 시기는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.

■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2014년부터 적용될 금융거래세 범위와 세율도 크게 축소할 것으로 예상됨.

- 주식, 채권 및 파생상품 모두에 과세하려던 계획도 2014년에는 주식에만 한정되며 채권은 2016년경,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는 2016년보다 더 늦춰지게 될 것으로 보임.
- 세율은 0.1%에서 0.01%로 대폭 낮아질 예정이며 이로 인해 세수는 약 350억 유로에서 약 35억 유로로 축소될 것으로 보임.

■ 이와 같은 금융거래세 실행 지연은 유럽 금융업계와 영국 등의 반대가 강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.

- Wall Street Journal은 금융거래세 시행 연기는 금융업계의 승리라고 표현하면서 그동안 금융거래세 도입을 반대하는 로비가 금융업계 전역에서 걸쳐 펼쳐져 왔다고 밝힘.
- 영국, 덴마크, 스웨덴 등은 FTT 회원국이 아니지만 금융거래세 도입으로 유럽의 채권시장이 왜곡되고 연금시장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함.
  - FTT 회원국의 금융기관과 비회원국 금융기관이 거래를 할 경우 양쪽 금융기관 모두 납세 대상이 됨.

1) 2013년 2월 EU 집행위원회는 2014년 1월 1일부터 11개국이 먼저 금융거래세를 도입 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음. 11개국에는 독일, 프랑스, 이탈리아, 스페인, 오스트리아, 포르투갈, 벨기에, 그리스, 에스토니아, 슬로바키아, 슬로베니아 등이 포함되어 있음.

■ 유럽보험협회(Insurance Europe)는 금융거래세 도입이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음.

- 퇴직연금과 채권 등에 금융거래세가 부과됨으로써 연금시장 위축과 투자수익률 하락이 예상됨.
- 또한 금융거래세 도입에 따른 경제 위축<sup>2)</sup>으로 보험수요가 감소하고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이 보험소비자에게 전이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함.

■ 유럽보험협회는 보험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상품을 금융거래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.

-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대한 과세는 연금 소득자의 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되는데, 이는 소비자의 피해 없이 투기성향을 띤 위험한 금융거래를 제한하겠다는 금융거래세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.
- 게다가 고령화로 노인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에서, 연금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는 금융거래세 도입은 EU의 사회안정망 구축 정책과 상충될 수 있음.
  - EU는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퇴직연금과 연금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음.<sup>3)</sup>

■ 또한 채권 거래에 대한 금융거래세 부과는 채권거래를 감소시킬 수 있어 거래 역시 금융거래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.

- 자산부채 매칭, 유동성, 투자수익 등의 목적으로 보험회사가 보유 또는 발행하는 채권에 금융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단기 채권을 회피하고 장기 채권을 선호하는 시장 왜곡 현상이 일어남.
  - 만기가 가까울수록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채권을 거래하려는 동기가 줄어들며 이는 결국 단기 채권의 수요를 줄이고 장기 채권의 수요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.
- 또한 채권 발행의 경우 현재와 같이 만기 1일이나 만기 50년 채권 모두 동일 과세가 적용된다면 장기채권 발행을 선호하게 되는 왜곡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임.
- 그러나 중장기채권의 경우에도 과세로 인한 유동성 프리미엄이 증가할 것으로 지적함.

(Insurance Europe 6/20, Wall Street Journal 6/26)

2) EU는 금융거래세 도입에 따른 금융시장 위축과 투자 감소가 GDP 감소로 이어지면서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. 금융거래세 도입으로 2050년 EU GDP는 0.28%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.

3) 생명보험회사가 제공하는 퇴직연금은 EU 퇴직연금 시장의 47%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명보험회사의 개인연금은 EU 사적연금 시장의 90%를 차지함.